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방위적 독립전쟁론’ 서술 검토와 과제*

1. 머리말

한국사 교과서는 타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영향, 집필진의 역사관 등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와 내용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역사학계에서는 교과서가 발간될 때마다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역사교육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역사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역사 교과서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서술 경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2019년 검정)으로 2024년까지 사용되었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독립운동사 서술 경향과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 역사교과서



김용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본 원고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방위적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 서술 비교분석 및 제언” 202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134호에 게재된 논문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파동’ 이후에 편찬된 첫 역사 교과서라는 점¹⁾, 둘째,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한국사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2015 개정 이후부터 한국사가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과 더불어서 ‘공통과목’으로 편제되었다.²⁾

셋째, 이전의 교과서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나열했던 것에 비해서 해당 교과서는 민족운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운동 방략과 이념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 양성 운동’, ‘사회주의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등의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시대적 특성 속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에 방점을 두었다.³⁾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의 독립전쟁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새롭게 집필될 교과서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원류(源流)라는 점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항일무장투쟁은 한국인들이 약 35년에 걸친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격렬히 저항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투쟁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교육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선 한철호는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구국·독립운동사 서술이 교육내용전개준거안과 사회과(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들 교과서가 임정이 외교 활동에만 치중한 것처럼 서술하였다고 보았다.⁴⁾ 황민호는 2009 개정 교육과정(2010년 부분 개정)에 따라 2011년에 간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을 대상으로, 만주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서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각 교과서별로 1910년대 독립군기지 건설,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193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진영의 항일무장투쟁 및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물·단체·지도·사진들의 오류를 지적하였다.⁵⁾

1)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반영되었다.

2)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공통과목’이란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것으로,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과목들을 말한다. 공통과목은 총 7 과목으로, 국어·영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3) 한승훈·남기현(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교육연구, 38, 359-366.

4) 한철호(2009).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한국학논총, 32.

5) 황민호(201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만주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체계와 내용. 송실사학, 29.

한편 신호승은 2015 개정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전체 판매량 82%를 점유한 J사, A사, C사 등 3종의 교과서만을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 서술과 관련 지도, 사진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가 무장독립운동을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즉,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등의 노선 구분은 전체적인 무장 독립운동사의 전개과정을 고려했을 때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 혹은 단체 중심의 노선과 삼일운동 이후 임정 중심 노선 등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을 피력하였다.⁶⁾

필자는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과 고등학교 역사부도 3종⁷⁾의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사 서술 현황을 파악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7차 교육과정으로 2003년(2002년 검인정)에 간행된 한국근·현대사 3종⁸⁾, 고등학교 역사부도 4종⁹⁾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년(2013년 검인정)에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4종¹⁰⁾, 고등학교 역사부도 1종¹¹⁾ 그리고 최근에 출판한 2022 개정(2025년 발간) 한국사¹²⁾ 등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2020 ~ 2024년까지 각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부도에 대한 서술체계 검토와 제언이 향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 개선과 보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6) 신호승(2020). 고등학교 한국사』의 서술 분석 -무장독립운동의 개념과 이미지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6.

7) ① 염○○ 외 8명(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A사; ② 최○○ 외 7명(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B사; ③ 이○○ 외 4명(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C사. 이들 『고등학교 역사부도』는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도에 교육부 검정을 받았다.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와는 다르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8) ① 김○○ 외 5명(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D사; ② 김○○ 외 4명(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E사; ③ 주○○ 외 4명(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F사.

9) ① 오○○ 외 3명(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D사; ② 이○○ 외 4명(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G사; ③ 김○○ 외 4명(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C사; ④ 이○○ 외 3명(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B사.

10) ① 왕○○ 외 6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H사; ② 최○○ 외 4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I사; ③ 도○○ 외 7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A사; ④ 주○○ 외 8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C사.

11) ① 이○○ 외 8명(2014). 고등학교 역사부도. 서울: D사.

12) 한국사2는 주로 근현대사를 다루는 반면에, 한국사1은 전근대사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1에서는 전근대사부터 일제강점기 경제·문화까지 다루었고, 한국사2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현대사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중학 교과의 계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호정(2022). 역사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역사와 현실, 125, 7쪽). ① 조○○ 외 16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H사; ② 김○○ 외 7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I사; ③ 강○○ 외 7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J사; ④ 도○○ 외 7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A사; ⑤ 신○○ 외 11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K사; ⑥ 최○○ 외 9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B사; ⑦ 정○○ 외 9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C사; ⑧ 강○○ 외 4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L사; ⑨ 조○○ 외 9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M사.

2. 목차 구성과 서술체계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목차는 총 4개의 큰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것은 제3단원에 해당된다. 이 제3단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대주제로 정해졌는데, 여기엔 일제 식민지 통치정책과 이에 대항한 독립운동이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서술되어 있다.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대단원 하에 1)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3) 1920·30년대 항일무장독립투쟁, 4) 의열투쟁, 5) 1940년대 항일 연합 전선 등 크게 5가지로 중주제를 정했다. 각 교과서 출판사별로 소주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차의 큰 틀에는 차이가 없었다.

1)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은 크게 국내와 국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국내는 1910년대 비밀 결사로 대한독립의군부(임병찬), 대한광복회(박상진) 등을 다루었으며,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인 이주가 많았던 만주·연해주·미주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서는 삼일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외교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이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론으로 인하여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이 비판을 받으며, 1923년에 이르러서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서술하였다. 3) ‘1920·30년대 항일무장독립투쟁’에서는 주로 1920년대에는 홍범도·김좌진, 대한 독립군·북로군정서, 봉오동·청산리 전투, 훈춘사건·간도참변·자유시참변을, 1930년대는 참의부·정의부·신민부, 국민부·혁신의회, 조선혁명당(군)·한국독립당(군), 양세봉·이청천, 만주사변 등을 다루었다. 또한 만주 지역 공산주의 항일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1933), 동북항일연군(1936), 보천보 전투(1937) 등을 살펴보았다. 4) ‘의열투쟁’에서는 크게 의열단과 한민애국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의열단에서는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 김원봉, 박재혁(부산경찰서)·최수봉(밀양경찰서)·김익상(조선총독부)·김상옥(종로경찰서)·김지섭(일본 궁성)·나석주(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한민애국단에서는 김구와 이봉창·윤봉길 등을 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5) ‘1940년대 항일 연합전선’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우선 사회주의 계열은 김

원봉의 민족혁명당(1935)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1937) - 조선의용대(1938) 등으로, 민족주의 계열은 김구의 한국국민당(1935)을 시작으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 - 한국광복군(1940) 창설을 다루었다.

전술하였듯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제3단원인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에 해당된다. 학계에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부족한 현 실정을 반영하듯,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이 소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예전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전근대와 근현대를 통합한 하나의 한국사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국외 독립군 설치와 군사 활동

가. 육군 : 남만주지역 광복군총영, 광복군사령부, 참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는 1919년 삼일운동의 결과물로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상하이는 각국의 공공조계와 영사관이 설치될만큼 변화한 국제도시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외교독립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상하이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졌다. 이처럼 초창기 임정의 활동은 외교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정의 기본 독립운동 방침이 외교중심론인 것은 맞지만, 임정의 활동 전체가 외교독립운동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었다.¹³⁾ 이와 같은 서술 경향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임정의 활동 가운데 군사활동 기술은 소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 중 M출판사의 경우 임정의 군사활동에 관한 서술 자체가 없었다.

D출판사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이 임정 산하에 편입되었다”라는 식으로 한 줄로 짧게 서술하였다. 반면에 A사와 K사는 구체적으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를 언급하였지만, 전자는 “임정 군무부 산하”에 편제, 후자는 “임정과 만주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연결”되었다고만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9 개정 A출판사는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만을 명시했을 뿐, 임정의 어느

13) 한철호(2009), *고등학교 한국사*·현대사, 한국학논총, 32, 65.

조직에 편제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예컨대,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 산하”,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임정 군무부 산하”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편제 대상에 따라 다르게 기술해야 함을 나타낸다. 엄연히 임정 산하의 군무부에 편제된 것과 단순히 연결되었다는 것은 표현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임정 군무부 산하로 편제된 남만주 독립군 단체는 광복군총영·광복군사령부·육군주만참의부(이하 참의부) 등이다.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는 임정 산하이지만 임정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는 임정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군무부 산하”로 표현하기보다는 “임시정부 산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실제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역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정을 봉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이들 두 단체는 군사정부로서 군정부(軍政府)를 표방하였으나,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정에 ‘정부’라는 명칭을 양보하고 자신들은 일개 군사단체라는 뜻으로 ‘군정서(軍政署)’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¹⁴⁾ 따라서 K출판사의 “임정과 만주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연결되었다”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인다.

임정과 만주 독립군의 관계에 관한 서술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A사 교과서였다.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1920년 임정의 직할 부대로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등을 함께 설명하였다.¹⁵⁾ 2015 개정에서는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만을 언급하였다가, 2022 개정에서 다시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 ‘육군 주만 참의부’를 서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주 독립군의 근거지 표현도 ‘서간도’에서 ‘남만주’로, 편제 주체 역시 “임정 산하”에서 “군무부 산하”로 바꾸는 등 서술의 변화를 보였다.

14) 한족회(서로군정서)와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는 임정을 지지하는 총론을 내세워 조직을 ‘황’로 명칭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한인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임정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신주백(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38-39).

15) A사, 291.



그림 1 — 2015 개정 I 출판사¹⁶⁾



그림 2 — 2022 개정 H 출판사¹⁷⁾

한편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에 관한 서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두 단체의 실체에 관한 현 학계의 논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이 동일 단체인지 혹은 별개의 단체인지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¹⁸⁾ 2009 개정 A출판사에 따르면, “1920년에는 직할 부대로 서간도에 광복군사령부와 이를 개편한 광복군총영을 두고 무장투쟁을 지원하였다¹⁹⁾”라고 서술하였다. I출판사는 “1920년 겨울 일본의 대규모 공격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어 광복군사령부를 광복군총영으로 개칭²⁰⁾”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광복군총영은 광복군사령부를 “개편” 혹은 “개칭”하여 조직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광복군 총영(1920.7.)은 광복군사령부(1920.8)보다 한 달 앞서 창립되었고, 그 이후에 두 단체는 병립(並立)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고가 반영되었듯, 2015 개정 A사는 남만주 직할 군단으로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의 병립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I출판사는 “개칭”이라는 표현은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군무부 직할의 광복군사령부”, “임시정부 직할의 참의

16) 2015 개정 I사, 176쪽.

17) 2022 개정 H사, 30. H출판사는 타 교과서와 달리 유일하게 15년 개정에 이어서 22년 개정까지 ‘천마산대’와 ‘보합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 설치된 비밀결사단체로서, 남만주의 광복군총영과 연계하여 무장투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만주 독립군의 국내전입작전시 내용 공작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천마산대는 이후에 광복군총사령부의 6개영(營) 가운데 제4영으로 편입되었다(박길순(1989). 1920년대 초기 국내武装闘爭團體의 活動과 推移.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6; 김영범(2009). 의열투쟁 I - 1920년대.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75-81).

18) 윤대원(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133; 박성순(2020).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송실사학, 45.

19) A사, 291.

20) 2009 개정 I사, 287.

부”라고 표현하여 직할 주체에 혼선을 보였다. 또한 참의부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도 출판사마다 달랐다. 7차 교육과정 E출판사 1923년, 2009 개정 I출판사, C출판사는 1923년을, 2015 개정 B출판사 1923년, C출판사 1924년, 2022 개정 A출판사는 1923년으로 기술하였다. 1924년설은 2015 개정의 C출판사가 유일하였다.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에 비춰볼 때, 1924년 6월이 유력해 보인다.²¹⁾

종합하자면, 임정은 1920년 독립전쟁 선포에 따라, 만주에 기설립된 광복군총영(1920.7.)을 군무부 산하로 편입시켜 활용하거나 그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남만주 지역에 광복군사령부(1920.8.)와 참의부(1924.6.)의 창설에 관여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별개로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등 만주 독립군 단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던 것이다.

나. 공군: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설치와 공군 건설 계획 추진

2015 개정 9종 교과서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인 비행사 양성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인 비행사 양성소’의 정식 명칭은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Willows] ‘한인 비행가 양성소(韓人飛行家養成所)’이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1920년 2월 20일에 임정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과 캘리포니아주 콜루사[Colusa] 및 글렌 카운티 일대에서 벼농사로 거부(巨富)가 된 김종림(金宗林)이 한인 비행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인비행학교가 발전한 것이다. 같은 해 6월부터 연습용 비행기 2대를 구입하고, 외국인 교관으로 프랭크 브라이언트[Frank K. Bryant] 등을 채용하였다. 또한 인근의 레드우드 비행학교[Redwood Aviation School]를 졸업한 이용선(李用善)·오림하(吳林河)·이초(李超)·노정민(魯鼎珉)·우병옥(禹炳玉) 등이 비행사로 임명되었다. 1920년 7월 5일 총재 김종림을 필두로 41명의 사원이 구성됨으로써 마침내 ‘한인 비행가 양성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교하였다.²²⁾

이처럼 임정은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항공을 활용한 항일투쟁도 추진해나갔다. 이는 마치 임정이 외교 활동만을

21) 윤대원은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1924년 6월 24일을 창립 시기로 보았다(윤대원(2013). 참의부의 ‘法名’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2) 임종현(2022). 미국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232.

전개하였다는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²³⁾ 즉,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등이 참여한 전방위적인 항일무장투쟁이었다.

하지만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서술에 비해 임정의 군사 활동에 관한 기술이 빈약하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당초부터 군사 활동과 외교 활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그 아래 참모부를 두어 군사 지휘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각종 군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군사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략)…그리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을 중국 정규 군사 학교에 입학시켜 군사 학습을 받게 하였고, 미국에도 비행사 양성을 위하여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1920년에는 군무부 직할의 광복군사령부가 결성되었다. 또 국내에서 일본 군경과 직접 전투를 담당할 광복군총영도 설치하여 치열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는 남만주의 독립군을 통합하여 군무부 직할의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강조, 밑줄 - 인용자).²⁴⁾

인용문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보다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7차 교육과정 때에는 한국사를 전근대와 근현대 시기로 구분하여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로 각각 출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현행처럼 전근대와 근현대를 통합하여 한국사라는 하나의 교과서로 발간되면 시기별 배분 문제로 그만큼 서술 내용이 소략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부터는 다시 ‘한국사1’과 ‘한국사2’로 구분하여,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 영역을 기술하였다.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지만, 임정의 외교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공군 창설을 비롯한 군사 활동에 관해서 서술

23) (주)D사(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따르면, 임정이 외교활동에 집중한 것처럼 기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임정의 군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임정이 “무엇보다도 힘을 쏟은 것은 외교 활동” 이라고 하였다. 임정의 외교 성과가 미국 등 강대국의 외면으로 좌절되자, 임정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 등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세력들은 독립운동전선의 통일과 독립운동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마치 임정이 외교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중국에는 무장투쟁론자 등 비판세력에게 임정 해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서술하였다(179).

24) 김○○ 외 4명(2003). 한국근·현대사. 서울: (주)E사, 175.

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필자가 파악한 2009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윌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등 임정의 공군 창설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²⁵⁾ 그러나 2022 개정 1사 한국사2에서는 “항일 공군 양성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노백린 장군과 한인 비행 학교 학생」 사진을 첨부하였다.²⁶⁾



그림 3 — 독립신문, 1920년 4월 27일

그림 4 — 2015 개정 B사

전술하였듯이 2015 개정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인 비행사 양성소 등 임정의 공군 설계 계획과 추진 활동을 소개해줌으로써 자칫 육군 중심의 군사 활동으로 흐를 수 있는 논지 전개를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9종 교과서 가운데 H사, B사 등 두 곳이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두 교과서 모두 군무총장 노백린과 한인 비행사 양성소 교관들을 소개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차이점이라면 H출판사는 노백린을 중심으로 좌우로 3명씩 총 7인²⁷⁾이 전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반면에(그림 3) 참조), B사의 경우, 양쪽이 한 명

25) 2009 개정 왕○○ 외 6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H사; 도○○ 외 7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A사; 최○○ 외 4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주)사; 주○○ 외 8명(2014). 고등학교 한국사. 서울: A사.

26)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 세워지게 되고, 청년 혈성단의 단원이자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배운 이초·이용선·한창호 등은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였다(강○○ 외 4명(2025). 고등학교 한국사2. 서울: 1사, 37).

27)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과 6명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 교관들 사진이다. 좌측부터 장병훈·오림하·이용선·노백린·이초·이용근·한창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독립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韓國學生中 美國 레드우드 부라이에트航空學校에 入學하여 飛行術을 研究하는 者 三名이 있는데 去月 中旬이 畢業期라고(飛行家三名,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백린을 비롯한 6명의 비행가들의 사진을 첨부하며 “右로부터 韓章鎬 李用根 李超 軍務總長 盧伯麟 李用善 吳林河 張炳勳. 飛行服을 着하고 盧總長의 左右에 羅立한 六靑年은 加州 레드우드飛行學校를 去二月에 畢하고 目下 윌로우스에 設立된 韓人飛行學校에서 研究教授에 從事하는 이들이라(本報 六十七號美洲通信 參照) 背景은 同飛行場及機體의 一部라(大韓이 처음으로 가지는 飛行家六人(民國二年 二月五日 桑港飛行機學校에서). 독립신문, 1920년 4월 27일)”라고 소개하였다.

씩 절삭된 노백린 등 5명만이 등장한 사진을 첨부하고 여기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림 4] 참조).²⁸⁾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나라 사랑 정신과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훈 관련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부분에서는 임정의 활동을 크게 ① 행정 활동 ② 재정 활동 ③ 군사 활동 ④ 경찰 활동 ⑤ 외교 활동 ⑥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③ 군사 활동 부분에서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를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1920년 1월 대한적십자회의 주관으로 간호원 양성소를 부설 기관으로 개설하여 남녀 간호병을 양성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독립군과 동포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개설되었음을 밝혔다.²⁹⁾



그림 5 —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교사 건물 사진



그림 6 —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한인 학생들³⁰⁾

만약 사진을 첨부할거라면 전체 인원이 등장한 사진을 게재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최근에 발굴된 한인 비행가 양성소 건물 사진([그림 5]³¹⁾ 참조) 등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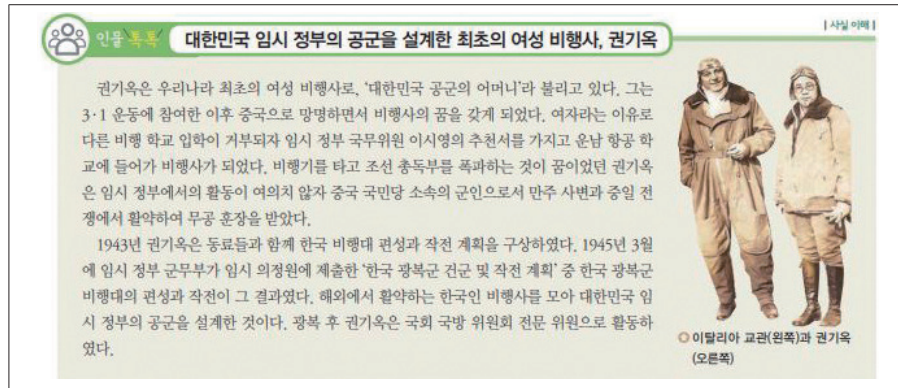
28) 2015 개정 B사, 179.

29) 황○○ 외 5명(2022).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수원: 경기도교육청, 77.

30)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77; 국사편찬위원회(20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4 : 사진자료, 99.

31)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 1-019897-131.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의 교사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애국지사 임성실(林成實, 1882~1947)의 사진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임성실은 1919년 미국 다뉴바 신한부인회 대표로 대한여자애국단 조직에 참여했고, 이후 대한여자애국단 다뉴바 지부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해당 사진 속 건물은 1918년 폐교된 '퀸트학교(Quint School)'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교사 건물이다. 사진 상단에 쓰여진 Training Camp, Willows, Cal를 통하여 한인 비행가 양성소 학교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교사 정면에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고, 마구간과 창고, 그리고 교사 건물 뒤로는 학생들이 기숙하던 막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해당 사진은 1920년 개교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을 촬영한 정확한 일자까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32) 김도형(2021).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사진 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5,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그림 7 — 2015 개정 M사³³⁾

한편 1940년대 임정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충칭[重慶]에 정착한 임정이 1940년 9월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였으나, ‘공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은 M사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1943년 3월 30일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행관제를 제정하여 군무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할 때, 육·해군과 더불어 공군을 명시하였다. 독립전쟁 수행에 있어서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회에서는 참모처 처장인 최용덕(崔用德)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무부 직할의 ‘공군설계위원회’를 두고 장차 공군 건설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³⁴⁾ 이처럼 1940년 9월 임정의 광복군 창설과 더불어 1943년 공군설계위원회의 설치·1920년 독립전쟁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군설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도 맥을 닿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40년대 임정의 공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F사가, 2015 개정 교과서에서는 M사가 유일하였다. F사는 한국광복군이 “미국과 연합하여 비행 편대를 편성”하려고 시도하였음을 밝혔다.³⁵⁾ M사는 8명³⁶⁾의 공군설계위원들

33) 2015 개정 M사. 220.

34) 홍선표(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軍史, 97, 197~198; 김기동(2018). 독립전쟁에서의 항공력 활용 노력과 ‘공군’ 개념의 형성. 군사사연구총서, 7, 165~167.

35) 7차 교육과정(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서울: F사, 215. 한국광복군은 1944년 8월 「한국광복군 9개준송행동준규」 취소를 계기로, 광복 직전부터 연합군인 미군과의 합작을 통해 공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홍선표(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軍史, 97, 204).

36) 최용덕 윤기섭(尹琦燮)·김철남(金鐵男)·이영무(李英茂)·김진일(金震一)·권기옥·이연호[李然 皓 또는 이상정(李相定)]·권일중(權一重) 등이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인 권기옥(權基玉)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독립운동사 서술이 남성 중심으로 치우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안배라고 보인다.³⁷⁾

4. 맺음말 : 임정과 '전방위적인 독립전쟁론'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는다. 이는 '독립전쟁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920년 초 임정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등 독립전쟁론을 전략론 차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투쟁 방법이나 전술 단위로서만 논의되었다. 이러한 해석이 현행 교과서에서도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교과서에 따라 '항일무장독립투쟁', '무장독립투쟁', '무장투쟁', '무장독립전쟁' 등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서술은 동일하다. 독립전쟁론이란 항일무장투쟁을 핵심 투쟁 방법으로 삼기는 하지만, 무장투쟁만을 말하거나 그 일변도의 투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³⁸⁾

임정은 1920년 새해 들어서 제국주의 일본과의 항일독립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인적,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와의 전면전은 무리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안창호는 독립전쟁 준비론을 주창하였다. 이는 막강한 전력을 갖춘 일제와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³⁹⁾ 이와 같은 요지의 서술은 2015 개정 현행 한국사 교과서보다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상략)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에서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임시정부는 당장의 대일

37) 2022 개정 교과서는 여성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권기옥·오광심(허사), 김정숙·민영주·신순호·오광심·지복영·조순옥(허사), 오광심(B사), 김정숙·민영주·신순호·오광심·지복영·조순옥(M사)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2015 개정 D사는 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훈·포상 등의 예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1절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훈·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4,329명, 이 중 여성은 272명(1.9%)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처에서 발굴한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2,747명)"에서도 "포상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소개하였다(2015 개정 D사, 187).

38) 신주백(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한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11.

39) '방법론' 관점에서 '실력준비론'과 '외교론'은 투쟁방략은 다르지만, '독립전쟁'이라는 '전략론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 양자는 무장력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신효승(2018).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항전보다는 후일에 일본이 중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전개하여 국제 정세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시점이 바로 독립 전쟁 개시의 적기라 판단하였다. …(중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사력 배양에 우선을 두어 독립 전쟁 준비에 착수하였다.⁴⁰⁾

이처럼 전략으로서 독립전쟁론이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미·일, 러·일, 중·일간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정세 변동 등 독립전쟁의 여건이 성숙되어갈 때,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바탕으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⁴¹⁾

1920년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이후의 만주·연해주 등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군사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개정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D사, J사, A사, B사, M사 등이 '전략론'이 아닌 '방법론'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정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다. 다만 B사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독립 전쟁도 준비하였다”⁴²⁾라고 설명하여, 다섯 곳 가운데 유일하게 임정과 독립전쟁론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서술 경향은 전근대와 근현대를 하나의 한국사로 통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술 내용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임정의 독립전쟁론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술이 임정은 마치 무장투쟁보다는 외교독립운동 노선에 치중한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⁴³⁾

40) 김○○ 외 4명, 앞의 책, 175쪽.

41) 신주백(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12.

42) B사, 179.

43) 2015 개정 비상·지학사·천재교육 등 3종의 역사부도 교과서에서도 임정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나 지도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학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으로, “군무부 설치,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독립 전쟁”하였다고 요약하였다(B사,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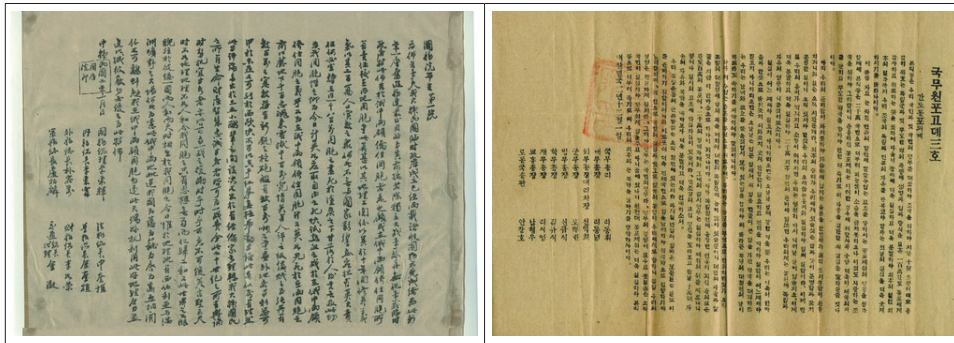


그림 9 — 전국민은 독립전쟁에 참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한 ‘국무원 포고문’⁴⁴⁾

또한 임정의 군사 활동 가운데 1920년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와 1943년 공군 건설 계획 추진에 관한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 없거나 소략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에 관한 서술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건군(建軍)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육군 중심의 독립운동사 서술에 균형감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임정의 ‘독립전쟁론’이 육군을 비롯하여 공군 등 전 한국민들이 참여한 ‘전방위적인 독립전쟁’의 열망이 발현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⁴⁵⁾



참고 문헌

- 김한중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군·현대사*, 금성출판사.
 김광남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군·현대사*, 두산.
 주진오 외 (2003). *고등학교 한국군·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오금성 외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금성출판사.
 이연희 외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삼화출판사.
 김유철 외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이범직 외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지학사.
 왕현중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최준채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주)리베르스쿨.

44) 국사편찬위원회(20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4 : 사진자료*, 56~57.

45) 국무원 포고 제1호. 大公報(天津). 1920년 4월 10일(국사편찬위원회(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39 : 중국보도기사 I*, 127~129).

- 도면희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 주진오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 이범직 외 (2014). 고등학교 역사부도, 금성출판사.
- 황선익 외 (2022).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경기도교육청.
- 최준채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 노대환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
- 이익주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주)리베르스쿨.
- 한철호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 도면희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
- 신주백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 송호정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 최병택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 박중현 외 (2024).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 이병인 외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비상.
- 이우태 외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 박근칠 외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지학사.
- 조건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 김보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 강승호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 도면희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 신주백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 최병택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 정요근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
- 강병수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한국학력평가.
- 조한경 외 (2025).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 김영범(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서울: 창작과비평사.
- 이명화(2009). 현행 교과서 도판 및 부도와 한국독립운동, 한국학논총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1-129.
- 이현주(2009).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철호(2009). 고등학교 한국사·현대사 교과서의 구국·독립운동사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논총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3-76.
- 황민호(201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체계와 내용, 崇實史學 29, 숭실사학회, 243-274.
- 윤상원(201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과제, 史叢 79, 역사연구소, 259-288.
- 강만길(2018).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서울: 창작과비평사.
- 신효승(2018).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효승(2020). 고등학교 한국사의 서술 분석 - 무장독립운동의 개념과 이미지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 156, 역사교육학회, 39-77.
- 한승훈·남기현(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교육연구 38, 한국역사교육학회, 337-394.
- 김도형(2021). 월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사진 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21-234.

- 신주백(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46.
- 송호정(2022). 역사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역사와 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3-19.
- 임종현(2022). 미국 월로우스 한인 비행기 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27-266.
- 한규무(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광주학생운동 부분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59-297.
- 조 건(2024). 2022년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아시아태평양전쟁 '停滯' 서술 실태와 원인, 동국사학 8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315-337.

필자 소개

수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전공하였다. 석사학위논문은 「비행사 서월보의 민족운동」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에서 박사 수료하였으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기획간사를 맡고 있다. 항일무장투쟁과 항공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